

■ 민선 5기 단체장에 듣는다

노관규 순천시장

“정원박람회 차질 없는 준비”

“201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민선 5기가 장 중요한 과제로 순천만 정원박람회의 차질없는 준비를 꼽았다.

노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시민들이 무소속 시장인 저에게 보내준 암도적 지지는 정원박람회를 훌륭히 추진하려는 특명이었다”며 “정원박람회는 700년 역사 순천의 꿈을 실현하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노 시장은 “국제 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와 함께 복지·지역·교통·문화·관광·교육·농촌

특히 경전철을 도입, 전남 동부권을 순환하게 하는 등 향후 전남 동부권의 통합시대에 대비한 교통 인프라도 마련해 다가오는 광양만권 및 남해안 시대에 순천의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정책은 ‘걸어서 10분 이내에’라는 모토로 현재 42개의 작은 도서관을 45개까지 늘려 전국 최고의 평생학습 및 도서관 도시의 명성을 지속, 시민을 위한 최상의 교육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과후학교 원어민 교사 확대배치 ▲사교육비 20%로 절감 ▲사교육 없는 학교 5개 이상 운영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무상급식의 경우 혜택 범위를 유아원·유치원, 초·중학생까지 확대하고 식자재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하는 방침이다.

또 날로 상권이 위축되고 있는 원도심 문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문화건강센터 준공, 문화의 거리 조성,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등을 통해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노 시장은 최근 지역 최대 현안으로 마사화가 개장을 강행, 시민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는 마린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문제에 대해 “대다수 시민들이 개장에 반대하는 만큼 지역사회에 모든 역량을 모아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경전철 도입…동부권 통합 시대 대비

지역역량 모아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

등 모든 분야를 총괄해 행정 주민 소득 4만달러 수준의 삶이 보장되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주도시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복지정책은 사회적 일자리 제공 및 공동체 생활 활성화 등을 통해 모든 시민의 기초생활 보장 등을 내용으로 추진된다.

문화·관광 정책은 창의적인 관광 마케팅과 관광객 유치 활동을 통해 순천을 홍보하면서 지역경제도 살찌우는 일기양식 전략을 수립했다.

노 시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대 배후단지와 유통산업단지를 연계해 신성장 미래산업과 의료·뷰티, 천연물 신약개발 등 서비스 사업 육성, 친환경 농업과 IT기술을 접목한 첨단기술을 도입, 농특산물의 가공 유통사업 확대와 브랜드화를 통한 잘사는 농촌육성을 등으로 한다.

또 지난해 신소재 마그네슘 자전거 10만대 생산에서 2014년까지 200만대 생산을 목표로 자전거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보성 유풋 솔밭해변 새 단장

郡 사업비 5억여원 들여 모래 2만5천t 깔아

보성군 유풋 솔밭해변이 새롭게 단장돼 지난 2일 문을 열었다.

보성군은 최근 사업비 5억5000여만원을 투입해 유풋 솔밭해변에 개장이라 철수한 해변을 복원해 관광 활기를 살피고 있다.

이번 사업은 400억원을 들여 보성이 사계절 해양종합휴양지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깔아 온빛 모래와 해변 노송들이 어우러지게 연출했다.

이와 함께 군은 유풋 일원을 중심으로 유풋 해양종합휴양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2만5000t의 고운 모래를 백사장 600m 구간에 60m 폭으로

고, 전국에서 제일가는 지하 암반 해수를 활용한 웨일펜션 30여동이 건립될 예정이다.

군은 현재 유풋 연안의 조류 흐름을 파악하는 수치모형실험실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7억원을 들여 기존 동물방지체와 천연 바위를 연계한 데크를 설치해 관광 명소화할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광주·순천권에서 40~50분대에 접근이 가능해 보성이 사계절 해양종합휴양지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아담공인중개사
010-3616-8698
062-233-2222

나대지

• 서구 쌍촌동 호남대 건너편 구장군관사 1,845㎡, 제1종일반주거지역, 10m 진입로, 매매가 3.3억 원, 종교시설, 요양원 적지.

식당·전원주택

• 광산구 선암동 호남대역 3,458㎡ 3.3㎡당 100만원.

지역지역 개발행위위로 조성양호.

전원주택·종교시설용도

• 광산구 선암동 보훈병원앞 9,722㎡ 3.3㎡당 60만원.

지역지역 분할 가능.

식당·사무

• 서구 마륵동 서남대병원 앞 대지 1,387㎡, 연면적(2층) 400.2㎡, 매매가 11억.

• 서구 능성동 구 한전앞 대지 719.7㎡, 연면적(3층) 328.9㎡, 매매가 11억.

전원주택

• 북구 화암동 대지 433㎡, 전인 1,994㎡, 구 주택 2동.

매매가 1억8000만원, 조망 경관양호.

나대지(주택)

• 광산구 신촌동 송정공원부근, 대지 407㎡, 제2종일반주거지역.

차량진입 가능, 매매가 25만원, 남향.

• 건물구함(병원·요양원·리모델링용)
광주시내 전지역, 연면적 1,000평이상.

소원성취의

길잡이가 되어 드립니다.
(점술원·역술원 아님·상담료 없음)

부담없이 차 한
잔 하시면서 삶
의 지혜를 얻어
가세요!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기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증 점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

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려개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않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기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아리울공인중개사
(063)583-7788
010-8004-5900
(전북 서원인, 세안금 전문업소)

인생열쇠
062-383-8982

■ 큰 꿈을 가지고 많
은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도 원하는
바를 성취 못하시
고 할 수 없는 장
애가 생기는 분

■ 현실의 장애를 이
겨내고 이루고자
하는 꿈을 실현하
고 싶은 분

소원성취의
길잡이가 되어 드립니다.
(점술원·역술원 아님·상담료 없음)

● 새만금 광원시대 입북으
로 펜션투자시 광주지역
원룸부지의 절반 금액으
로 수입은 3배이상 금리
는 낸 25%이상 보장되는
물건만 취급

● 2010년 4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 개통으로 지
금이 투자하기!

잦은 오존주의보… 광양은 괴롭다

비 적고 이상고온에 기준치 초과… 시민 불안

市, 100만그루 심기 등 ‘오존 저감대책’ 총력

매년 여름철이면 광양만권의 오존(O₃·ozone)농도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나 오존발생 원인규명 등 장기적인 오존관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6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오존 주의보’(0.12ppm)가 광양시에 내려진데 이어 지난달말부터 ‘오존주의보’ 수준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광양만권은 오존주의보 발령이 2회 있었으나 여수·광양시의 경우 지난 2007년 21차례·2008년 14차례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었다.

이처럼 광양만권에 매년 오존농도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나 ‘오존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며 호흡기·폐·눈 등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잇따르자 시민들이 불안감을 갖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에 광양시는 ‘쾌적한 녹색성장’도

물질 배출 억제와 탄소 흡수처리 등 녹색기술 개발·녹색생활 실천·폭염 경보제’ 운영관리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달 광양시는 “강우 빈도가 적고 고온현상이 지속되는 것이 강한 자외선과 함께 오존농도가 상승하는 원인”이라고 결론지었다.

광양환경연합 관계자는 “광양만권의 오존농도는 급상승은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하나의 인재다”며 “지금부터라도 관계기관들은 시민의 건강과 안위를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

장했다.

장태기 광양부시장은 “근본적인 오존관리를 위해 오존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오존관련 관계자 대책 회의 개최 등 관·기업·시민이 함께 하는 종합 오존관리 체계구축에 나서겠다”면서 “환경부와 시·도·가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 및 광양만권의 오존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어 용역결과에 따라 중·장기 오존관리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 오존주의보=오존 농도가 일정 수준(1시간 평균 0.12ppm 이상)보다 높아 피해를 입을 염려가 있을 때 이에 대한 주의를唤기하기 위해 발령하는 예보로 지난 1995년 도입됐다.

광양 매화마을 ‘우수’

형제의 병장마을 ‘장려’

행안부 ‘정보화마을 평가’

광양시 매화마을과 형제의 병장 정보화마을이 행정안전부 주관의 ‘2010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에서 우수마을과 장려마을에 각각 선정됐다.

전국 357개 정보화마을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는 정보격차해소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3개 분야·11개 지표에 대해 1차 정량평가와 2차 현지실사가 진행됐다.

이밖에도 ▲특산품 판매를 통한 주민소득증대 ▲마을주민의 활성화의지 ▲마을 홍보 등 평가지표 11개 전부문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광양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마을주민들과 함께 노력해 지역홍보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에는 현재 5개 정보화마을(섬진강재첩·백학동·고로쇠·매화·형제의병장)이 운영중이다. 지난해 ▲마을홍보(언론·키워드광고) 62회 ▲주민교육 47회 534명 ▲전자상거래 판매실적 8억2000여만원 등을 기록했다.

/동부취재본부=김정수기자 choung47@



레일바이크 타며 여름속으로

‘곡성 섬진강자연마을’을 찾은 기족단위 관광객들이 레일바이크를 타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레일바이크는 침곡역~가정역(5.1km) 구간과 구곡성역~곡성역(1.6km) 구간에서 운행되고 있다. <곡성군 제공>

여수서 9일까지 ‘사회복지 전국대회’

순천영재교육원 ‘여름 집중수업’ 실시

순천교육청(교육장 김광호) 영재교육원은 지난 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전남과학고에서 단계별 여름 집중수업을 실시한다.

이번 여름 집중수업은 순천 영재교육원 중학교 2학년 35명이 참가해 물리·화학·수학·특강 등 학생들의 진로탐색의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과 영재교육원 학기종식 이전에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체험학습 기간동안 학생들이 제한된 원내에서 벗어나 보다 직접적인 활동을 체험하기 위해 부산권의 한국과학 영재학교·창